

제주시 만나는 5·18 40주년 기념전

4·3 기념사업위, 5·18행사위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서

역사화 7점·사진 15점 전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오월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5·18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전 '제주 : 5·18을 보다' 전시전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제주4·3'이라는 현대사 속 아픔을 가진 제주가 광주와 연대의

식을 가지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이달 첫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5·18의 역사적 사실을 예술적으로 시각화한 역사화로서 ▲폭풍 전야 ▲햇불로 조국의 미래를 밝힌다 ▲계엄령 ▲민주성회 ▲대동세상 ▲슬픈세상 ▲피로 물든 새벽은 밝아오고 등 7점과 5·18 민주항쟁 현장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있는 사진 15점이 선보인다.

제주 4·3기념 사업위가 선정한 7점의 그림은 5·18민주화운동의 진행과정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10년 전 광주 지역 작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제작한 것이며, 전시는 이들 작품의 복사본이다.

전시장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갤러리나 전시관이 아닌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이 선택됐다.

사업위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이용되지 않는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을 전시장으로 선택했다"며 "제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 전시장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은 제주시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던 장소다.

제주 4·3기념 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4·3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기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

겠다"면서 "코로나19로 실제 전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야외 거리전시가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5·18민주항쟁기념 제주행사위원회와 제주민중연대,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5·18기념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한다. 전시회는 거리전시로 24시간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제주 4·3기념 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을 함께 다루는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교폭력 위기 학생 지원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서부교육청 '부르미' 발대

"학교폭력 위기 학생 지원, 부르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학교폭력,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출동 시스템 '2020 서부부르미' 발대식을 가졌다.

'서부부르미'는 박주정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초·중등 각 1팀으로 운영된다. 유정중(산월초등학교장) 초등팀장, 김효중(수원중학교장) 중등팀장을 비롯해 학생 생활지도 관련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및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등 18명을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지난 2017년 창단해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부부르미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위

기상행에 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긴급 출동, 생활교육 지원 등을 펼쳐왔다.

어려움에 처한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까지 영역을 확대해 생활교육과 관련된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장을 맡은 박주정 전남공고 교장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 한 아이도 빠짐없이 학교폭력 등의 위기에서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서부부르미'는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부르미 대표 전화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1644-9576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5·18도지 참배 전남대병원 이삼용 병원장과 의료진 및 직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3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40년 전 아전병원을 방불케 할 정도의 참혹한 의료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치료에 매진했던 선배 의료진의 정신을 이어, 군부의 폭압에 희생된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리고자 이뤄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18기념재단 40주년 맞아

외국인 대상 온라인 기념식

18일 재단 홈페이지 공개

5·18기념재단이 40주년을 맞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념식을 진행한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5시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국제 온라인 기념식- 한국 민주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40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진행이 어렵고, 외국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그동안 재단과 교류를 해온 국내·외 활동가와 세계 각지에서 5·18 4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민주인권 활동을 위한 동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 이라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온라인 기념식은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 재단 해외 파트너와 더불어 세계인권도시 시장들의 메시지를 포함해 영어로 진행된다.

화상 통화를 활용한 이번 온라인 기념식은 15일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링크가 공개되고, 기념식 시작 1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기념식 영상은 이후 5·18기념재단 계정 SNS 및 유튜브 채널에 공유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 민주화운동 공간 잇는 '민주길' 준공

18일 정문서 '민주길 열림식'

전남대에 산재해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하나로 잇는 '민주길'이 준공된다.

전남대는 매년 5·18을 전후해 전국에서 수많은 대학생이 몰려드는 것을 비롯해 정문에서 정병석 총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총동맹회와 주요 단체장, 민주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길 열림식'을 가진다. 참석대상과 행사규모는 생활방역 지침에 맞게 조정됐다.

전남대 민주길은 8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내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11곳을 3개 노선, 5km로 잇는 일종의 둘레길로, 지난 2018년 시작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날 준공에 이르게 됐다.

열림식은 경과보고와 민주길 소개 등이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걷는 '민주길 동행' 순으로 진행된다. 순례길에는 전남대 5·18연구소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전남대는 매년 5·18을 전후해 전국에서 수많은 대학생이 몰려드는 것을 비롯해 정문에서 정병석 총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총동맹회와 주요 단체장, 민주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길 열림식'을 가진다. 참석대상과 행사규모는 생활방역 지침에 맞게 조정됐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전남대에서 민주·인권·정의의 실현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학생과 교수,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민주길'을 열었다"며 "문화, 휴게, 소통의 공간이자 생활 속의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18~27일 5·18 40주년 기념주간 다양한 기념행사

사이버 기념관 구축 운영

광주교육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27일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5·18기념행사와 체험학습이 축소 또는 폐기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40주년 기념 교육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이버 기념관도 구축한다.

사이버 기념관에서는 추모와 다짐의 글

올리기, 영상 등 디지털 교육자료와 각종 수업 자료 지원, 참여행사 안내,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 나누기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원격수업 등 등교 상황을 고려해 18~27일 5·18 기념주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기념행사와 계기교육도 적극 권장했다. 5·18 의미와 과제를 종이파켓으로 제작해 집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5·18 다함께

철렁지'를 원격수업과 연계토록 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기, 5·18 온라인 상징물 만들기 등 다양한 온라인 참여 활동도 마련했다.

더불어 시 교육청은 5·18인정도서 개발에 막바지 비지맘을 쏟고 있다. 지난해 5·18기념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10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인정도서 초안을 완성한 데 이어, 최근 이를 각급 학교와 전국 사·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석웅 전남교육감 지지율 1년째 전국 1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사·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개월 연속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1년째 전국 1위 자리를 이어갔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민선3기 전국 17개 사·도교육감의 2020년 4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0.9%의 지지율을 얻어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3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한 뒤, 4월 조사에서도 소폭 상승해 2개월 연속 60% 이상의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17명의 사·도교육감 중 6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도 장 교육감이 유일하며, 2위(48.2%)와 12.7%p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장 교육감이 취임 후 줄곧 추진해 온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학생 중심 교실개혁'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며,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